

주간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10
Oct. 2023
Vol.11 No.10

통권 110호

- 아가페 영커플 특집
- 할렐루야 나잇
- 소채플 지킴이 봉사
- 주안에 Hope



‘점어진 교회 활기찬 ICCC!’



주안예교회 30~40대 그룹 ‘아가페 영커플’ 4개 목장. 50여명의 목원들이 신앙과 삶, 젊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최근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교회의 분위기를 젊고 활기차게 바꾸고 있다. <김윤영 기자>

■ 영커플 ‘안녕고 뭐하니?’

2023년 10월 28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쌀쌀한 아침공기가 가득한 토요일. 주안에 영커플들이 단합회를 위해 주안예교회 친교관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얼굴에 저마다 기대와 반가움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주안예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가정은 아직은 어색한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권사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아침메뉴(김밥, 어묵국, 군고구마 등)를 먹으며 서로의 어색함을 풀기 시작했다.

양태섭 장로님의 감사기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놀기 위해 영커플이 4팀으로 나누어졌다. <2면에 계속> | 김현경 집사 | <관계기사 2, 4, 5면>





‘게임 통해 친밀, 예배 통해 주안에 하나’

■ 영커플 '안놀고 뭐하니?'

〈1면서 계속〉 목장과 부부를 떠나 주 안에 영커플로써 하나되기 위해 팀이 되었다. 각자의 팀에게 주어진 약 5분의 시간동안, 팀리더와 팀 모션을 정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몇 분전에 어색함은 온데간데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재밌는 아이디어로 팀의 identity가 정해졌다.

첫게임은 방탈출 게임이다. 8개의 단계(방)를 찾아가, 주어진 문제를 풀어서 가장 빨리 통과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삼시간에 교회는 런닝맨 촬영지가 된 것 같았다. 교회 구석구석이 뛰어다니는 소리, 웃음소리, 환희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승리의 목표로 하나가 된 팀 안에서는 더 이상의 어색함도 소외됨도 없었다.



게임 후에 준비된 어마어마한 점심식사에 다시 한 번 감동한 영커플은 준비된 갈비, 토마토김치, 오징어볶음, 배추국을 먹으며, 다음 게임을 준비한다. 팀별로 대항한 단체게임을 통해 더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며, 영커플

은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갔다.

찬양과 예배로 하나가 되는 시간, 모두 목소리를 높여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렸다. 이어서 최혁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빙하에 비유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주는 영향은 빙산의 일각일뿐, 보이지 않는 해류가 빙하를 조정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재치 넘치는 정현철(4목장 목사) & 정성훈(3목장 목사) 집사님의 명진행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오늘의 1등 팀을 필두로 모든 팀과 팀원들이 풍성한 선물을 하나씩 받는 기쁨을 누렸다.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양육의 안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다음 단합회를 기약하며 마쳤다.

1천여 어린이들 예배드려요~



■ 선교지 사진

마르디 어린이교회 아이들 1,000명이 넘어 가는데.. 놀랐죠? 주께서 쏟아 부어 보내주시는 남수단 어린 영혼들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120명에게 준 장학제도로 인해 헌신된 교사들이 있고 이들의 헌신으로 어린이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연속입니다.

| 남수단 박경호 |



‘할로윈 잇어라, 할렐루야 나잇 신나요’

■ 할렐루야 나잇

10월 31(화요일) 밸리채플에서는 '할렐루야나잇' 행사가 있었다.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식사를 위해 애쓰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덕분에 맛있는 로제 파스타와 수제 갈릭소스를 발라 직접 구워주신 바게트빵, 나초 등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다.

저녁 7시가 되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부터 키즈, ICY, 코람데오, EM, 영커플, 손자 손녀들을 보러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친교실이 꽉~ 채워졌다.

특히 올해 할렐루야나잇은 찬양팀이 이슈가 되었는데 Joshua Kim의 리더로 'One Way'라는 영어찬양을 시작으로 양이 이어질 때마다 주뻗뻗 부



끄러워 하던 아이들조차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어느새 친교실 안이 찬양의 열기로 가득 채워져 열린 마음으로 예배가 이어졌다.

이번 할렐루야나잇 행사를 위해 10월

29일(주일)부터 각 부스를 위해 셋팅하고 데코레이션 하는 일들을 영커플에서 솔선수범해 돕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정성스럽게 셋팅하는 모습이 감사했고, 키즈를 졸업한 학생들이 찬양팀으로, 스테이션 리더로 섬기는 모습 또한 감동이었다.

장난감 물고기 잡기, Face Art, 미니 볼링, Air 하키, 젠가, 미니 Golf, 초코렛분수(과일꼬치 담귀먹기) 등의 놀이스테이션과 Canvas 페인팅, Hair Styling 등은 본인의 재능을 통해 섬길 수 있었기에 더 특별했다.

올해의 할렐루야나잇 주제인 'Heavenward(foot대를 향하여)'처럼 foot대를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주안에교회 모든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 이성은 기자 |

처음 교회 나왔어요~



사무엘 윤 · 최사론 성도 첫 딸, 윤가을



전흥섭 · 강정임 집사 둘째 아들, 전이든

■ 새가족 소개



파나섬, 테리티앙 커플

저희 가족을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저희 가족을 반겨주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명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가족을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많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서 시간이 될 때까지만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으니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생님과 형제자매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들어 주안예교회 공동체에 새가족이 된 영커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각자의 성장과 신앙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교회에서 받은 첫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제가 이들의 마음에 이 곳이 바로 자신들이 꿈꾸던 교회라는

‘첫 방문에 반했어요’

김아론 · 이정현 커플



1. 현재 3목장에 함께 있는 성은 자매의 추천으로 주안예교회에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었고 얼마인에서 파사데나로 이사를 오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던 중이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같은 신혼부부 셀에 있었던 성은 자매의 여러 번 추천 끝에 주일 첫 방문에 설교에 한 번 반하고, 영커플 모임까지 하게 되면서 ‘여기다’ 라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2. 마주치는 분들 모두 서로 미소로 반겨주고 세대 간, 공동체 간(영커플 목장끼리는 물론이고 EM과 청년부 코람데오, 장년까지도) 경계가 없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EM과 KM까지도 친하게 섞여 지내는 게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어서 참 신기했어요. 영커플 공동체에서 서로를 더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또 저희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어울리고 하나 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해요! 성은 자매가 처음 주안예교회를 추천해줬을 때 멀다는 핑계로 바로 오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요!ㅠㅠ

3. Laura/ Tom Park 집사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이야기를 나누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지, 육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결코 앞서지 않는 실생활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나이와 삶의 단계가 영커플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모범의 선배 부부가 되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도 다음 세대 부부들에게 모범과 위로가 되는 부부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 목자의 글 (영커플 4목장/ 정현철 · 정브렌다 집사)

말씀 · 기도 · 교제 통해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저희 영커플 4목장은 주님의 사랑으로 최근에 탄생한 하나님의 귀염둥이 입니다.

현재 6가정이 주님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소원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기고 기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입니다. 앞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영커플 그룹, 주안예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에게 영커플 4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4목장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저에 비해 신앙의 성숙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안예교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



가자고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각자 받은 은사를 토대로 선교적인 영커플 4목장이 되길 기도 합니다. 선교적인 영커플 4목장의 계획 중 하나인 영커플 샌디에고 목장을 만들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 새가족 소개

생각에 합류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착한 여섯 커플들에게 3가지 설문을 통해 이들의 이들의 느낌을 알아봤다. 1. 주안예교회에 오게 된 동기/ 2. 첫 예배 소감 또는 주안예교회의 좋은 점/ 3. 주안예교회에서 꿈꾸는 신앙생활은? <편집자 주>

‘따뜻함, 섬김, 행복 가득’



최준용 · 박예은 커플

1. 부모님과 동생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고, 먼저 OC 채플로 다니게 되었는데 집과 무척이나 가까워서 좋았고 현재는 교회가 멀지만, 마음만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전혀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영커플 아가페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워 본받고 싶습니다. 요게벳 전도사님 & 선생님들의 손길 덕분에 저희 부부가 마음 편히 어른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은준이가 요게벳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게 보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FC골반 여자축구를 통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니 행복합니다.

3.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주안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예찬 · 지유진 커플

1. 보스턴에서 엘레이로 이사오면서 와이프의 고등학교 동창을 소개 받았는데, 마침 주안예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초대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았고 봉사자분들 모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게 느껴져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주안예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유현수 · 김민정 커플

1. 결혼 후 산타클라리타로 이사 오게되어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던 중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안예교회를 발견했습니다.

2.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 보였고,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3. 이제 청년이 아닌 부부로서 신앙생활을 주안예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자의 가정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동체에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세요!



권경민 · 송기영 커플

1. 이사를 하고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자는 와이프의 권유와 주안예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더라는 말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가식으로 보이지 않고 웬지 싫지 않았다... 그날 따라 이상하게 일을 마치고 피곤에 찌들어 집으로 가던 와중 문득 와이프의 말이 떠올라 "도대체 말씀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거야? 한번 들어보자" 는 교만한 마음으로 차를 돌려 교회에 도착 했습니다.

주차봉사를 하였던 분들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한발짝 한발짝 마다 엄청 후질근한 저의 모습은 상관없다 잘 왔다는듯 가식없는 미소로 환영해주시고 맞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보며 이교회 다른 교회랑 좀 다르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본당에 들어와 와이프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려고 하는 차에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날 따라 설교말씀 중 "베들레헴" "떡집" 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와 꽃혔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며 신앙생활했던 교회이름이 베들레헴이었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Q.T. 시간 중 가장 크게 제 마음에 울렸던 문구중 하나가 "떡을 떼어서" 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자하신 양장로님과 권사님의 인도로 너무 좋은 목장에 들어와 목자님의 즐거운 보살피심과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을 목장에서 만나 경계심은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며 기대하는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주안예교회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열심으로 배우고 섬기며, 하루 하루를 말씀으로 채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 요게벳 일일교사/ 박예은 성도

‘진짜 엄마 못지 않는 세심함’에 뜨거운 감사가...

@10AM

10시 전후로 모여서 회의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빵 그리고 손수 구워오신 맥반석 계란을 먹으며 함께 근황도 나누고 그날 있을 예배에 대해 자세히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Craft 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번 주 있을 할렐루야나잇 준비 등, 서로의 기도제목도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게벳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10:30AM

각자 맡으신 구역을 담당하여 청소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정해진 청소 구역을 기쁨과 정성으로 청소하시며 금방 만날 아이들의 모습에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10:50AM

일찍 온 아이들을 위해 한 분의 선생님께서 한 분의 아이를 지정하여 맡은 아이를 지루할 틈이 없게끔, 재미있게 책도 읽고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의자에 미리 앉아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함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끔 옆에 앉아 묵상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아이의 눈에 맞춰 돌봐주셔서 그 세심함이 진심으로 느껴짐에 감동받았습니다.

@11:15AM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직접 준비해온 헌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고심하며 준비하신 예배 시간, 신나게

게 점프하며 온 마음 다해 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올려퍼지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도 참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12PM

예배 후 아기자기한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미끄럼틀, 그네도 타고, 다양한 장난감으로 소꿉놀이도 하며, 선생님들이 주시는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재밌게 노는 나머지 부모님들이 예배 후 픽업을 와도 더 놀이방에서 놀고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고, 이 모든 자리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의 기도와 손길에 다시한번 감사드리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게벳 일일 체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요게벳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있구나 하고 깨닫게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제일 감명깊었던 부분은 선생님들 모두가 요게벳 봉사를 위해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성가대 연습이 있어 아직 감감할 새벽 6시에 교회에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전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아예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 어찌보면 요게벳 예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곳이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께서 오직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 IC Now/ IC Power

'과학실험 · 간식만들기' 재미있어요

10월 8일(주일) 한국의 날을 맞아 IC NOW와 IC POWER는 연합예배를 드린 후, 싸이먼 집사가 방문해 어린이주일에 이어 '신기한 과학실험 데모 2탄'을 해주었다.

소금의 양으로 컬러가 다르게 나타나는 무지개워터, 불케이노라바 (화산의 용암)를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만들기도 하고, 소금물의 양과 물의 온도로 삶은 달걀을 가라앉게도 중간으로 맨위에 떠오르게도 하는 실험도 있었다.

조롱조롱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직접 실험도 하면서 과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고학년들이 저학년 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설명해 주면서 서로에게 의미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실험이 끝나고 마침 배꼽시계가 울리는 출출한 시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간식 '김밥'을 아이들이 같이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해 주신 단무지, 계란, 햄, 치즈, 오뎅 등을 넣어 아이들 각자의 입맛에 맞게 정성스럽게 넣고 말고 싸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들이 그날따라 더 사랑스러웠다. 이제는 한류로 '김밥'은 한국인의 입맛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니 더 특별한 체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이성은 기자 |



신세대 돌잡이 '십자가 잡았어요!'

■ 한글학교 문화체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통과의례처럼 치리는 '돌잡이'를 경험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아쉽게도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이런 추억과 기억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안에한글학

교에서는 전 학생들과 한국 전통문화인 돌잡이의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고 자신의 소망을 담아 리마인드 돌잡이를 진행하였다.

저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교회 돌잡이인 만큼 십자가와 성경책을 더하여 더 풍성한 돌상에서 가장 맘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흡사 돌잔치 촬영장 같았던 현장 속 아이들은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며 함박웃음을 지었고 학부모님 중 한 분은 미국에 오느라 아가때 중요한 돌잡이 기회를 놓쳐 늘 맘이 쓰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됨에 진심어린 감사함을 전하였다.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오늘의 이 순간들이 기분좋은 추억의 단편으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조각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 이현영 기자 |

주안에교회의
아름다운 미래

10월 31일 밸리채플에서 'Heavenward 풋대를 향하여'란 주제로 할렐루야나잇이 열렸습니다.

작년 9월 키즈에서 ICY로 올라간 학생들이 이번에는 봉사자로 섬김의 자리에 Join 해주면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 같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같은 신앙의 color를 배우고 한 공간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계속 마주하며 점차 성장하는 주안에교회 키즈만의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그리고 함께 오신 부모님들 또한 모두 즐길 수 있었던 할렐루야나잇은 잠시 일상생활을 벗어나 아이들을 위해 열린 천국잔치 같았습니다.

기뻐 뛰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주안에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통하여 보존해 주시고 유산을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미래를 상상할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은 캔디와 초코렛을 먹으며 뛰어노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이들 이지만 이 주안에교회에서 점점 교우들의 관계가 넓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때 미래에는 또 이 아이들이 리더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보살피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나잇 행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주안에 Hope

종신형 50대 형제의 복음 열정

샌디에고 교도소를 김현권 목사님께서 교회밴을 운전해서 7명이 함께 갔다. 83세, 77세, 73세 권사님들과 전호선 장로님, 김정이, 조명휘 집사님.

매번 작은 승용차로 다니다가 ICCCL로고가 있는 교회밴을 타니 훨씬 쾌적하고 안정감을 준다. 날씨도 좋고 태평양을 끼고 달리니 마음에 설렘이 먼저 파고 든다.

첫 빌딩에 도착해서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김금숙 권사님과 나를 내려놓고 교회 밴은 다른 빌딩을 향해 달려갔다. 3시간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김 권사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이 케니를 10년전에 만나 조카, 이모라고 부르는 사이다. 그래서 권사님이 조명휘 집사의 모든 수고를 곁에서 보고, 겪어서 나에게 전해준 내용이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너무 억울해 못된 성질 부리다가 조명휘 집사를 만나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변화 받은 형제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무죄 증명을 위해 뛰시다가 돌아가시고 불교 신자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가 아들을 위해, 또 자기를 위해 픽업해서 면회를 하게 해주는 조명휘 집사의 헌신을 보면서 지금은 크리스천이 되었다.

“제가 이곳에 들어 올 때 영어 실력이 7학년 수준이었어요.” 그랬던 케니 형제는 Harvest Bible University에서 학사, M. Div. 를 끝내고 지금 박사과정 중이다. 2022년 옥중 결혼을 하고

부인이 자폐증 요양사 공부를 도와 주기도 하고 가장으로 그녀의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미전국에 종신형 받은 수감자가 6천 명이 넘는데 그들을 돕는 카운셀링을 자기가 있는 감옥에서 케니 형제가 처음 시작했단다. 지금은 12명씩 두 클래스를 가르치고, 상담한다. 각가지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해서 크게 공감해 주었다.

다른 도시 감옥에서 정신과 의사를 고용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할때 흔쾌히 도와주며 그 의사에게 이런 일에 관심갖고 도와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 했단다. 벌써 좋은 소문의 열매가 보여서 듣는 나도 기뻐다.

“형제님은 종신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벽을 헐고 들어서 의사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열매도 풍성할거예요.” 하고 말했더니 크게 공감하며 기뻐한다.

50이 넘는 나이에도 청년의 열정이 보이는 젊고 활기찬 이 사람이 종신형 죄수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한정된 공간에서 삶으로 보여 주지 않으면 전도가 안되요.”

그의 진솔한 말에 그건 밖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한정된 공간이라 두드러지게 드러날 뿐이지요.

“대개보면 아주 어렸을 때 상처로 여

기까지 왔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떠오르면 막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물건들을 있는대로 다 내던지고...”

“그럼 형제님.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가르쳐 주세요. 부르다보면 간절해 지고, 간절히 부르다보면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케니 형제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밝게 웃는다.

“마약을 과다복용해서 죽은 사람이 여기에서만 9명이 되요. 같은 방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빨리 간수를 부르면 살아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종신형 받은 사람들 중에 자살이 많아요. 한 30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나봐요.”

듣는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데 함께 있는 이 형제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들에게 빨리 전도해야 할 의무가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내년이면 UC Irvine 에서 공부를 계속할 형제에게 숙제를 던져 놓으니 세 시간이 다 되었다.

“또 오세요.” 그의 인사를 들으며 꼭 안아 주고 마지막 떠나는 방문객이 되어 면회실을 나섰다.

| 이예스터 기자 |

■ 26목장 소식

소나무 숲 ‘교회 피크닉’

10월 1일 주일 2부예배 후, 목장 모임을 교회 본당 뒤쪽 주안에 동산에 늘 푸른 소나무 그늘아래 예비된 장소에 텐트 3개를 치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놓고 각자가 준비해 온 음식들을 차리고 삼겹살과 불고기, 갈비 등을 굽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목장 성도들이 다 모였다.

오랜만에 신선하고 쾌청한 초가를 날씨에 예배를 통해 받은 “원수를 사랑 하라” 는 말씀을 받은 터라 앞에 차려진 잔치상에 마음이 끌려가지만 한편으로는 주일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처럼 오늘은 주안에 참 아름다운 동산에서 초가를 청명한 가을 날씨에 살살 부는 바람소리 가운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25목장은 LA 지역구이며 김용수 목자님의 지도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을 실천하면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수요일 마다 김장로님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아서 말씀을 되새기는 참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하는 목장이다. 목장 성도들을 위한 참 사랑을 모두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다.

25목장에는 언제나 시원하고 상쾌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김규실 목자님과 오랜 신앙의 경륜을 쌓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장” 으로서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다.

| 김명균 장로 |

■ 원군자 권사 백수연

대접하는 삶의 본보기... 100세 생신 축하드립니다

원군자 권사님은 OC 채플 드림목장의 목원이셨습니다. 작은 따님이 주안예교회 전정자 권사이고 함께 살면서 교회를 모시고 나오셨지요. 드림목장이 모이면 권사님은 우리를 대접하고 싶어하시고,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나눠 주기도 하셨어요.

팬데믹 직전 양로병원으로 입주하신 후, 면회를 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어머니날쯤 되어 면회가 가능해져 OC 권사 몇사람이 찾아보았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며 반겨 주셨는지 저희가 더 기뻐지요. 집에서 키운 야채와 과일 그리고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저희가 떠나자마자 음식들을 풀어 함께 살고 계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권사들이 만들어 왔다고 대접을 하셨대요.

이번에 백세 생신을 맞아 자손들이 축하연을 하시면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반세기를 혼자 6남매를 키우시고 돌보신 권사님이십니다. 4남 2녀를 두시고, 장남이 목사님이시고 차남 부부가 저희와 같이 주안예교



회를 다니다가 접근처 교회로 옮겨서 함께 주안에 힐링캠프를 한 분들과 전정자 권사의 목장이 원권사님의 백수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맑은 정신력과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려하는 착한 심성으로 손주들을 잘 키워 주셨고, 증손들의 재물로 백세 잔치를 화기에애 하게 갖으셨

니다.

10월 29일 주일에 온 교인을 대접하고 인사드리고 싶어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풍성한 메뉴로 대접하신 권사님은 단아하시고 고우신 모습대로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후손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예스더 기자 |

■ 주안예라이프

행복한 인생 7학년

아담한 체육관으로 학생들이 꾸역꾸역 모여든다. 7학년 8학년에 6학년 학생들이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나누며 따끈한 커피잔을 들고 자리를 잡는다. 한 주일만에 만나 서로의 건강한 얼굴을 확인하고 노인대학에 '오길 잘 했지' 라며 웃음과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70, 80대는 서로의 말이 통하는 학생들 이라 꽃은 끝없이 이어진다. 조출하니 고구마와 달걀에 사과가 아침을 달래 준다.

일본의 침탈로 시작된 남북분단, 6.25사변, 이산가족, 4.19, 5.16 등의 어려운 시대를 건너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다 큰 흐름에 보따리 꿰차고 태평양을 건너와 OK목장의 카우보이들과 어깨를 같이한 학생들이다. 떠나온 조국의 발전에 어깨를 펴는가 했는데 그 조국의 어지러운 정치가 영 마음에 걸려 걱정이 태산인 그들이다.

가슴에 남아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초가집의 등잔불로 시작해서 우물, 가마솥, 고무신, 통일버, 구공탄, 보



릿고개, 우거지, 주판, 뒷간, 손빨래, 금강산, 입학시험, 화랑담배, 고무줄놀이, 연날리기, 줄줄이 이어지는 그러나 떠오르다가 아련히 사라지는 단어들이다.

주방에서 종일 빵을 구우며 건방 떠는 손님에게도 허리 굽히던 사람, 종일 페니 세다가 손가락이

새까맣게 타버린 구멍가게 아저씨, 억지쓰는 상사를 속으로 욕하던 젊음, 운이 좋아 돈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온 행운아, 내일을 위하여 오늘오늘을 살아온 그들이다. 구비마다 한가락 하던 이들이 내 등집만 무거웠다고 생각치 않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웃음과 유머로 만남의 자리를 같이하는 학생들이다.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성경, 미술, 음악, 바둑 등 15반으로 나뉘어 못다한 미련에 정열을 쏟으며 두 시간을 쪼다 한다. 다시 모인 자리에 진수성찬이 펼쳐진다. 곰탕, 생선조림, 김치에 나물까지 푸짐한데, 과일접시와 식혜가 등단한다. 암! 뭐니뭐니 해도 입이 즐거워야 양반이지. 부역의 넉넉한 씹음이 인심을 고마워하는 학생들이 그 부역으로 눈인사를 보내며 다음 한 주일을 예약한다.

| 지상문 성도 |

■ 중남미 선교지를 돌아보고(2) / 김경배 장로

미션스쿨 세워 복음전파 헌신적인 삶 묻어나

② 페루 박화균 선교사/ 파라과이 한소용 선교사

이 열악한 황무지 사역지에 하나님은 14년전에 나성 영락 교회를 통해 개신교 교회를 세웠고, 때가 이르매 7년전에 새로 파송받은 박화균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를 예수의 복음으로 재정비하고, 유치원으로 시작했던 학교사역은 지난 4년전에 국가에서 기독교 사립학교 인가를 받아 현재 등록된 초, 중, 고등 학생이 총 220명에 이르며, 학교의 3층 건물에 중심지에 세워져, 현실에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도 학생들이 넓은 운동장에 모여, 스피커를 통해 울려나오는 ‘한국 국민체조’ 음악과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국민체조로 학업을 시작한다. 오늘은 미국에서 저희들이 방문했다고, 이 학교의 자랑인 제식 행진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한 학생들이 제복을 갖추고 분열과 행렬의 제식행진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까지 했다.

주안에교회가 후원하는 4분 현지인 전도사님들은 교회 섬기며, 학교 사역에도 시간들여 헌신하는 일꾼들로, 난민촌 안에 세운 5개의 지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지교회 사역을 돕는 1인 3역을 감당하고 있다. 파송을 결정한 나성영 락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코로나를 포함한 여러 역경의 어려움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파송교회가 꿈꾸는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선교사님의 개인적 보람은 물론 파송한 나성영락교회와 성도님들, 적은 부분이지만 주안에교회도 협력해 선을 이루었고, 저희 일행도 결실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기뻐고, 선교는 하나님 시간대의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았다.

세번째 방문한 파라과이에서는 현지의 1세대 선교사로 존경받는 정금태 선교사님께서 두 젊은 후원 선교사인 박승일 한소용 선교사님을 직접 인솔해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저희들을 환대해 주셨다. 도착한 날이 주일이라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하는 한소용선교사님은 섬기는 교회로 떠나고, 저희 일행은 박승일 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하기 위해 그의 안내로 3-4시간 떨어진 현지인 교회의 주일예배



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뒤이어 부인인 최원영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학교를 방문해, 학교사역을 돌아보았다. 최원영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뉴욕의 연합교회에서 파송한 정원찬 선교사님의 기술학교 허가과 운영의 자문을 하였던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뉴욕의 연합교회에서 파송한 정원찬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부인인 최원영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위임받아 뉴욕 연합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결국 까다로운 기독교 사립학교 인가를 조건부로 받아 현재 유치원서부터 4학년까지 총 120명의 학생이 있다.

가장 나이가 적은 한소용 선교사님은 파라과이 국립 의과대학에서 6년동안 공부한 의학도로, 공공기관의 행사나 선교대회 때에 어김없이 동시 통역으로 불려나가는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란다. 그는 굳이 선교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동료선교사들이 인정한다. 그런 그의 잔잔한 미소에서 고민의 흔적이 보였다. 장인이신 1세 선교사님이 담임하던 교회를 이어 받아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그의 비전이 너무 컸을지도 모른다. ‘주안에교회가 후원선교사로 후원해 받은 지원금으로 빵을 팔아 자녀를 기르는 부인에게 위로와 큰 도움이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 선교국 새 조직 모임

주안에교회 선교국이 본격 사역 2년째를 앞두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과 역할을 분담하고,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34개국 70여명의 선교사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하고 선교지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먼저 5개 커뮤니케이션팀이 각 13~14개씩 선교지를 맡아 소통기로 했다. 또 뉴스레터, 홍보, 사진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세계 복음화’를 행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한마음으로 충성하기로 다짐했다.



가족끼리 목장끼리 밤을 지새며 ‘교회사랑’ 한 마음

교회에 한참 진행중인 소채플 건축 사이트 지키기를 위해 9월부터 사인업을 하고, 저녁과 새벽에 두개조를 짜서 순찰을 돌고, 기도하며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다. 최혁 목사님은 성도님들 모두 마음을 모아 소채플 건축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밸리 6목장이 10월 마지막 토요일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사인업 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 후부터 목원들이 함께 모처럼 긴 밤을 지새며 밀렸던 정담을 나누고,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갔다. 지어져 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가 새삼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들을 포함한 가정들은 침낭을 가져와 차에서 잠깐씩 눈을 붙여가며 자기도 했다. 새벽까지 밤을 새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나오신 최혁목사님과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킴이로 애쓰고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로 나와 순찰을 돌고, 또 어린 아들들 셋을 데리다 나오신 집사님 가정도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방법을 몸소 알려주시며, 소채플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계셨다.

다가오는 겨울을 지나 소채플 완공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로, 또 여러가지 필요를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 류명수 기자 |

■ 11-12월 정원관리

옹겨심기 최적기, 과일수 수종따라 가지치기 유의

금년에 과일나무와 정원수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꽃과 잎, 줄기로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해 주었는데 11월과 12월은 뒷정리와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주는 중요한 시기이다.

1. 묘목 심기와 옹겨심기: * 새로운 묘목을 구입하여 심으면 곧 우기가 다가와 뿌리가 활착 하기 쉬우므로 봄철에 심는 것보다 6개월 정도 빠른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단 묘목의 다양성은 봄철에 비해 적은 편이다.

* 화분이나 땅에 심겨져 있는 낙엽 식물을 옹겨 심을 경우 나무가 활동을 멈추었으므로 뿌리에 흙을 붙이지 않고 옹겨 심어도 좋다. 너무 길게 뺀 뿌리는 적당히 잘라준다. * 오렌지, 레몬 같은 상록수들은 흙과 함께 파서 천으로 뿌리부분을 싸맨 다음 옹겨 심는 것이 안전하다

2. 거름주기: * 11월 이후 겨울동안은 성장을 위한 거름은 주지 않는다. * 과일나무는 12월에 닭 분뇨 거름을 흙과 1:1로 섞어서 밑거름으로 가지 끝부분 밑 안팎 2피트 지역에 2인치 두께로 뿌려주고 흙으로 살짝 덮어 준다. * 낙엽 지는 과일 나무나 오렌지나 레몬 같은 상록 감귤류 모두 내년 3월에 과일나무에 주는 웃거름을 준다.

3. 물 관리: * 비가 많이 올 때 과일 나무 근처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파주는 것이 좋다. * 낙엽이 진 나무에는 겨울 동안 물을 많이 주지 않고 1달에



1-2번 뿌리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준다. 겨울동안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죽게 된다. 오렌지 같은 상록수들에는 2주 1회 정도 물을 준다.

4. 가지치기: 낙엽이 진 후 죽어서 회색빛이 된 가지, 아래로 향하거나 수평으로 자란 가지, 서로 엇갈려 자란가지, 위쪽으로 곧게 뻗은 가지, 성장이 부실하거나 꽃눈이 없는 가지는 잘라준다. *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는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한다. 지난해에 자란 가지를 끝에서부터 1/3정도 자른다. * 대추나무: 지난해에 자란 가지는 잘라준다. 나무 밑 둥이나 흙 표면에 나온 가지를 잘라준다. * 감나무: 나무 모양을 형성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 후 5년째부터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 사과나무, 배나무: 3년째 자란 가지의 끝부분부터 1/4정도를 자른다.

5. 병과 벌레 예방: 금년에 발생했던 병과 벌레들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 나무 밑에 있는 낙엽, 썩은 열매, 마른 가지를 모두 치운다. * 흙디포나 기타 너서리에서 휴면기 살포(Dormant Spray)약을 구입하여 설명서에 적힌대로 물에 섞어 12월과 1월 1회씩 2번 살포한다. * 나무줄기와 가지에 골고루 살포하고 나무 밑에 있는 흙에도 충분히 뿌린다. | 나형철 기자 |

■ 음악산책/ 원칙과 질서

순간의 영감이... 걸작이 되기까지

찰나의 순간, 영감이 떠올라 일필휘지로 작품을 써 내려갔다는 천재 작곡가들의 일화는 감탄을 자아내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들은 진정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 것일까.

음악 작품 탄생의 이면에는, 질서를 학습하는 시간이 녹아들어 있다. 기존에 정해진 음악 질서를 학습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재배열하며 수많은 습작의 시간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질서가 형성되고, 그 결과물은 하나의 작품이 되어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학습의 속도와 습작의 분량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도 이 과정을 건너 뛰고 갑자기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악보에는 음의 높낮이, 길이, 강약, 속도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공통의 약속이다. 악보 속의 법칙과 질서를 지켜 연주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음악이라고 부른다. 같은 악보를 보면서도 각자의 해석과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는데, 이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악 속의 자유다. 악보를 준수하되 내가 느낀 만큼 해석하고 연주할 때, 질서와 자유는 공존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과 질서를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



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민족의 흥망성쇠에서부터 미물의 생과 사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안에서 결정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각자 믿

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변치 않는 원칙은 하나님의 질서를 엄수하는 것이다.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를 다해 응답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 뿐이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었고, 오직 천장에 뚫린 구멍만 존재했다. 노아는 홍수의 한 가운데에서도 밖을 보며 근심하지 않고, 하늘로 난 창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질서와 섭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는 방주가 될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 야구팀 플레이오프

7회 역전 허용 아쉬운 준우승 '그러나 잘했어!'

지난 10월 28일(토요일) 오전 10시, 주안예교회 야구팀(Dream팀)과 LAKA리그 최강팀인 Timing 팀과의 금년도 야구 결승 경기가 Azusa high school west 캠프에서 열렸습니다.

리그전 2위팀인 주안예교회 Dream팀(감독 이원근안수집사)은 주전 투수인 Erick Lee의 호투에 힘입어 마지막 7회 2아웃까지 6-2로 앞섰으나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갑자기 상대팀의 방망이가 불을 뿜어 역전을 허용 아쉽게 6-7로 패해 우승을 상대팀에게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이원근 감독은 소감을 통해,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하위 순위에 머물렀었는데 21명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 결승까지 오르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한미 리그와 연합하여 더욱 많은 경기를 하게 되어 기대가 된다고 하며 야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원근 감독은 선수들 개개인을 위해 작은 트로피를 만들어 선물로 증정하고,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고 다짐하고, 우승을 한 상대팀에게는 아낌없는 축



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도 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안예교회 Dream 야구팀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이광영 기자 |